

건강 칼럼

잡은 귀 통증과 난청, 중이염을 의심해봐야

일 교차가 심한 요즘 세균 혹은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증상이 발생하기 쉽다. 감기 이후에 귀에 통증이나 청력저하, 발열이 지속된다면 중이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중이염은 귓구멍 안쪽 고막 뒤편에 있는 중이에 생기는 염증을 말한다. 이는 통증, 발열, 이명, 청력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데 성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연령에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인데 감기 바이러스나 기타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중이로 이동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그 외 알레르기, 가족력, 구조적 요인 등이 있으며 7세 미만의 유아는 특히 상안에 비해 이관의 구조가 미숙해 중이염이 쉽게 발생한다. 중이염에 걸리게 됐을 때 가장



권기연
유성선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흔한 증상으로는 귀 안쪽의 압박감, 박동성으로 느껴지는 통증이 있다. 동시에 염증으로 인한 부종과 삼출액으로 인해 난청 즉 청각에 문제가 발생하며 발열, 이명, 식욕부진, 어지러움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을 위해 이경 또는 이내시경으로 고막의 상태를 점검하고 청력 검사를 통해 청력의 상태를 파악한다. 원인균 감별을 위해 세

균배양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병변의 범위와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CT를 찍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급성 중이염인 경우 약물치료로 증상을 멈출 수 있다. 경구 항생제와 더불어 귀에 넣는 항생제 이용액이 효과가 좋으며 소염진통제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만성 중이염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은 효과가 일시적이며 완치를 위해서는 수

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염증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수술의 종류도 달라지는데 염증이 경미한 경우 귀 안쪽으로부터 수술하는 고막성형술과 고실성형술을 할 수 있으며 병변이 광범위한 경우 귀 뒤에 5cm 정도의 피부를 절개하고 유양동과 중이에 대한 유양동삭개술과 고실성형술을 같이 할 수 있다. 중이염을 예방하려면 특히 환절기에 상기도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평소 귀의 청결을 유지, 손씻기,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하다. 또 가급적 금연을 하고 면역력이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예방접종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알레르기나 비염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 관리도 중요하다.

기고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둘다리 두들기기

봄비에 모든 곡물이 집에서 깨어 나면 농부들은 겨우내 전사해 두었던 밭씨들을 내어 놓자리를 만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돌아온다.

5월 영농철은 농부들에게는 파종하는 매우 바쁜 달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3년간 전북자치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사고는 총 535건으로, 봄철에 193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철 145건(27.1%), 여름철 143건(26.7%)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 중에서도 5월이 8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농번기가 시작되어 이앙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전복사고, 전도사고, 추락사고, 끼임사고, 절단사고로 분류되는데 이 5가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통 예방 요령으로 먼저, 농기계 보관장고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작업할 때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전·후에는 반드시 점검·정비를 해야 하며, 논밭 출입은 안전하게 해야 한다.



유명수
덕진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또한, 운전석 옆에 동승자를 태우지 말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되며, 등화장치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복사고와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사가 심하거나 좁은 농로를 지날 때 주행속도를 반드시 줄여야 하고, 두령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운전해야 한다. 끼임사고, 절단사고 예방 방법은 안전장치는 떼어내지 않고 제 위치에 부착하고, 험형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않고, 어린이에게는 농기계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둘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있듯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사고가 줄어들 거라 확신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하며 걷는 사람들



8일(현지시각) 폴란드 오시비엥침에서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추모하는 연례 홀로코스트 추모 행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폴란드 국기를 몸에 두른 참석자들이 아우슈비츠 브르케나우 수용소를 걷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어느 70대 화가의 첫 개인전

어느 하백이 일흔에 첫 개인전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고하반영 화백의 아들 하지홍 화백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21년 개인전을 연 그는 "순수한 화가로 기억되고 싶다. 삶에서 관찰한 것을 그려왔던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액자 없는 그림을 길거리에 늘어놓고 전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전시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되리라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5세에 붓을 들었지만 일흔이 돼서야 첫 개인전을 열게 됐다. 그는 고하반영 화백의 넷째 아들이다. 전주영화제작소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개인전에서는 '생화', '그래도 그림(Sill, I'm drawing)' 등이 선을 보였다. 5세 때 그린 그림을 포함해, 추상화인 사계절과 사람들, 정물화인 열을꽃, 풍경화인 구천동 계곡 등 40점이다. 그중에

서도 '흔적 - 지나온 길'이라는 무채색의 그림에 가장 애착이 간다고 했다. 그는 그림에 재주가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짧은 시절에는 공연장 무대 미술이나 영화 세트장에서 디자인 관련 일을 했다. 상업 그림인 포스터를 그려 수익을 내기도 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였다. 하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재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해 내성적이고 비관적이었다. 잘 나가는 아버지가 계셔서 장애에 대한 열등감을 더 가졌던 기억도 있다. 생업 탓에 그림을 등쳐야 했던 그가 다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건 둘째 아들 준일씨가 작업 공간을 마련해주면서다. 아들 준일씨는 전주영화제작소 무료 대관 공모 전시를 모집했을 때 여기에 응모해 전시 기회를 따냈다.

60개국 2100쌍 천주축복식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이 최근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브라질, 우크라이나, DR공고, 코스타리카, 인도, 솔로몬제도 등 세계 60개국에서 2100쌍이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을 개최했다. 현장 및 생방송 온라인으로 참석한 '2024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식'은 4월 24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정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렸다. 한화자 총재는 "창조주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만물을 창조로 창조하시고 인간시조가 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성장기간을 통해 스스로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훈 64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2024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식'은 미국성직자협의회(ACLCL) 목사들 100명과 각계 지도자 및 가정연합 회원 2만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눈물의 땅 아프리카를

평화와 번영과 행복이 있는 '신(神)아프리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 인류가 나서야 한다. 종교의 벽, 국경의 벽, 인종의 벽, 이념의 벽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참사랑만으로 찾아야 한다. 항구적 평화와 인류 행복의 토대를 닦는 일은 매우 소중한 가치다. 이는 의로운 선각자 및 세계 지도자들과 연대하여 이룩하는 평화와 행복의 길, 축복을 통한 참가정운동이다. 종교와 인종, 국가, 이념 등 모든 장벽을 극복해야 할 때이다. 한편 본행사인 '2024 효정 천주축복식'을 비롯해 2024 국제지도자회의(ILC), 신통일한국을 위한 초종교 기도회, 2024 한반도 평화포럼, 한일 피스로드 포럼, 다문화가정 정책지원 학술세미나, Re-light 2025 콘퍼런스 등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